

박시은·진태현 딸 생겼다…국대 꿈꾸는 마라토너

등록 2026.06.02 00:00:00



[서울=뉴스시스] 배우 박시은·진태현 (사진=SBS TV 예능 프로그램 '동상이몽2' 유튜브 캡처) 2026.06.01. photo@newsis.com *재판매 및 DB 금지

[서울=뉴스시스]박재민 인턴 기자 = 배우 박시은·진태현 부부가 "딸이 국가대표 마라토너를 꿈꾸고 있다"고 한다.

박시은·진태현은 오는 2일 방송하는 SBS TV 예능 프로그램 '동상이몽 시즌2 - 너는 내 운명'에서 딸이 훈련 중인 강원도 정선 종합운동장을 방문한다.

진태현은 "재작년에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. 마라토너 딸이다"고 말한다.

그는 "딸바보 같아서 제 입으로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 올해 2026 서울D마라톤에서 (딸이) 3위권에 올랐다"고 한다.

또 "이후 쉬지 않고 3주 만에 메이저 대회에서 3등을 차지했다"며 "(딸은) 연속 3위권에 이름을 올린 차세대 마라톤 유망주 26살 한지혜 선수"라고 한다.

이어 "(지혜가) 국가대표 마라토너 선수가 되는 게 우리 패밀리의 꿈"이라고 한다.

박시은은 "지혜는 친부모님이 계시지만 왕래를 안 하는 상황"이라고 말한다.

그는 "(우리가) 지혜에게 또 다른 집이 되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"고 말한다.

©공감언론 뉴시스 jane1014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